

INSIDER
GUIDES
from VisitTheUSA

남부의 음악적 뿌리

텍사스주 - 루이지애나주 - 미시시피주 - 앨라배마주 - 테네시주
노스캐롤라이나주 - 조지아주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남부의 음악적 뿌리



텍사스주 댈러스 출발, 텍사스주 오스틴 도착

소요 시간: 3시간 15분, 거리: 313km

텍사스주 오스틴 출발, 샌안토니오 경유, 휴스턴 도착

소요 시간: 4시간 15분, 거리: 445km

텍사스주 휴스턴 출발, 포트아서 경유,
루이지애나주 라피엣 및 뉴올리언스 도착

소요 시간: 5시간 45분, 거리: 576km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출발, 배턴루지 경유,
미시시피주 나체즈 및 인디애놀라 도착

소요 시간: 6시간, 거리: 547km

미시시피주 인디애놀라 출발, 투펠로 경유,
앨라배마주 버밍햄 도착

소요 시간: 3시간 45분, 거리: 468km

앨라배마주 버밍햄 출발, 테네시주 채터누가 도착

소요 시간: 2시간 15분, 거리: 236 km

테네시주 채터누가 출발, 테네시주 게틀린버그 도착

소요 시간: 2시간 45분, 거리: 247km

테네시주 게틀린버그 출발, 테네시주 및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레이트스모키산맥 경유, 조지아주 애틀랜타 도착

소요 시간: 4시간, 거리: 317km

조지아주 애틀랜타 출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도착

소요 시간: 5시간, 거리: 482km

텍사스주 오스틴 출발, 샌안토니오 경유, 휴스턴 도착

●●●●●●●●●● 소요 시간: 4시간 15분, 거리: 445km

5일 차

휴스턴으로 가는 길에 샌안토니오를 경유해 생생하고 역동적인 음악 문화를 경험해보세요. 테하노와 헤비메탈 장르가 유명한 이 도시에는 새도우랜드 볼룸(Shadowland Ballroom)과 플라자 호텔(Plaza Hotel) 등 재즈가 깊이 뿌리내린 곳도 있습니다. AT&T 센터(AT&T Center)와 페이퍼 타이거(The Paper Tiger) 같은 대형 공연장이 여행 코스로 유명하기는 하지만, 이보다 작은 클럽들 또한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되어 모든 장르의 라이브 음악을 선사하며 밤을 밝힙니다. 이제 라일 로벳(Lyle Lovett), 지지 탑(ZZ Top) 및 데스티니스 차일드(Destiny's Child) 같은 아티스트들이 커리어를 시작한 곳으로 유명한 휴스턴으로 이동해보세요. 오스틴에서 시작해 지금은 메인 스트리트에 크게 자리 잡은 콘티넨탈 클럽은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밤을 보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100년 전 폴란드식 댄스홀이던 역사적인 피츠제럴즈(Fitzgerald's)는 수요일마다 신예 뮤지션에게 마이크를 내주며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유명 밴드가 라이브 공연을 선보입니다. 휴스턴에서 가장 최근 생긴 명소 가운데 하나인 화이트 오크 뮤직 홀(White Oak Music Hall)은 2016년 개관한 이후 더 루미너스(The Lumineers)를 비롯해 최고의 밴드가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실내는 물론 야외까지 세 개의 무대가 있으니 한 곳을 선택해 아름다운 도심과 리틀 화이트 오크 바이유(Little White Oak Bayou)의 절경도 감상해보세요.

숙박: 텍사스주 휴스턴

**INSIDER
GUIDES**
from VisitTheUSA





텍사스주 휴스턴 출발, 포트아서 경유, 루이지애나주 라피엣 및 뉴올리언스 도착

●●●●●●●●●● 소요 시간: 5시간 45분, 거리: 576km

6일 차

멕시코만 연안을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다 포트아서에 도착하면 걸프 코스트 박물관 (Museum of the Gulf Coast)을 방문해 이 지역 출신인제니스 조플린(Janis Joplin)을 비롯해 클라렌스 ‘게이트마우스’ 브라운(Clarance ‘Gatemouth’ Brown), 지지 탐 및 에드가 윈터(Edgar Winter)와 조니 윈터(Johnny Winter) 같은 멕시코만 출신 아티스트들의 발자취를 간직한 명예의 전당을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는 18세기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이 정착하며 세운 루이지애나주의 중심 도시이자 케이준 컨트리(Cajun Country)의 수도인 라피엣으로 가보세요. 현지 공연장에서 케이준과 자이데코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의 공연을 관람해보거나 다양한 문화 축제 중 하나에 참여해 시간을 보내보세요. 다음 목적지는 음악이 깊이 뿌리내린 뉴올리언스입니다. 클럽에서는 물론 거리에서도 재즈와 아프리카계 쿠바 음악부터 디스랜드 재즈와 리듬앤블루스 및 자이데코까지 모든 장르의 선율이 흐릅니다. 프리저베이션 홀(Preservation Hall)에서는 작은 공간에서 멋진 뮤지션들이 전통 뉴올리언스 재즈를 연주합니다. 일찍 도착해서 스탠딩 공간을 이용하거나 한정된 좌석을 미리 구매하세요. 또 하나의 라이브 음악 허브인 프렌치맨 스트리트(Frenchmen Street)에는 밤마다 재즈 밴드가 세 팀이나 무대를 꾸미는 스폿티드 캣 뮤직 클럽(The Spotted Cat Music Club)과 같은 공연장이 준비합니다. 뉴올리언스 국립 재즈 역사 공원(New Orleans Jazz National Historical Park)을 방문해 재즈의 탄생지로 유명한 이 도시에 대해 알아보세요. 음식과 칵테일 문화를 빼놓고 뉴올리언스를 논할 수 없습니다. 야외 카페부터 고급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셰프들은 슈가 파우더를 뿌린 베네, 강한 향신료의 잠발라야, 훈제 양두유 소시지와 같은 현지 음식을 저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재즈 & 헤리티지 페스티벌(Jazz & Heritage Festival)이나 마디 그라(Mardi Gras)가 열리는 시기에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숙박: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2박

루이지애나주 스폿티드 캣 뮤직 클럽



조지아주 애틀랜타 출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도착

●●●●●●●●●● 소요 시간: 5시간, 거리: 482km

15일 차

찰스턴은 다채로운 색상과 정교한 철제 구조물이 특징인 남북전쟁 이전 시대의 주택으로 유명합니다. 돌이 깔린 거리를 걸으며 이런 주택과 정원 및 찰스턴의 역사가 서린 수변 산책로인배터리(Battery)를 돌아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900년대 초반 래그타임(Ragtime)이 유행하던 시기에 인기를 누리고 1920년대 재즈의 비트에 리듬을 불어넣은 찰스턴 댄스 덕분에 찰스턴이라는 이름은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미상(Grammy Award)을 수상한 가수 다리우스 러커(Darius Rucker)는 "Charleston, SC 1966"이라는 앨범도

발매했습니다. 1990년대 리노베이션한 찰스턴 뮤직 홀(Charleston Music Hall)은 타워 디포(The Tower Depot)로도 유명한데, 이 도시 최고의 라이브 음악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붓한 저녁 시간을 원하신다면 역사가 숨 쉬는 다운타운의 바 또는 해변의 술집을 찾아가 재능 있는 뮤지션들이 선보이는 무대에 빠져보세요.

숙박: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INSIDER
GUIDES**
from VisitTheUSA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미국 전역의 자세한 여행 정보 및 아이디어를 보려면 GoUSA.or.kr을 방문해보세요.